

# 중국산 아나타제 TiO<sub>2</sub> 반덤핑 재심

## 코스모화학, 국내산업 피해 지속 주장 ... 6개월 조사 후 연장여부 결정

중국산 아나타제(Anatase)형 TiO<sub>2</sub>(Titanium Dioxide)가 반덤핑 재심에 들어간다.

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TiO<sub>2</sub>에 대해 반덤핑 조치 여부를 위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월21일 발표했다.

TiO<sub>2</sub>는 2011년 3월 반덤핑 조치가 풀릴 예정이었으나 국내 유일의 백색안료 생산기업인 코스모화학이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사를 신청했었다.

중국산 아나타제형 TiO<sub>2</sub>는 백색 안료로 도료, 플라스틱, 고무, 제지 등에 쓰이며 국내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900억원 가량이다.

무역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 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0/21>